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1일)

편집부

교회에는 성인이 많이 있다.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많은 성인을 어떻게 공경하였을까?

성인들에 대한 공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난 4세기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들 무덤에 모여 예절을 거행하곤 하였다.

처음에는 순교자들만 공경하였으나 점차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과 수도자, 동정녀들도 공경의 대상이 되면서 축일의 숫자가 늘어갔다. 여기에 지역 교회들 사이의 교류로 다른 지역에서 공경하던 성인들의 축일도 거행됨에 따라 성인 축일의 수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만 갔고, 로마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 같은 중심 교회들은 일년에 다 거행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성인 축일을 갖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시대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슬러 복음 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교회에서 공경되어 성인으로 선포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일로 삼는다.

또한 교회 역사 안에는 일찍이 순교하였지만 알려지지 않았거나, 한평생 거룩한 삶을 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하느님만이 그들의 이름을 알 고 계시는” 익명의 성인들이며 이들에 대한 공경도 시작되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성인들의 축일 외에, 덜 알려진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축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이 세워지게 된 까닭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인이 이 축일을 통해 공경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축일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시성식이나 전통에 의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생활하다 죽은 후 하느님과의 일치를 누리고 있는 모든 이를 말한다.

그레고리오 4세 교황(827-844년)은 835년 이 축일을 11월 1일로 확정하면서 로마 교회의 영향력 밑에 있던 유럽 교회 전체가 지키도록 하였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황 그레고리오 3세(731-741년)가 베드로 대성당의 한 부속 경당을 순교자뿐만 아니라 증거자, 동정녀 등 모든 성인에게 봉헌하였는데, 언제 봉헌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것이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을 11월 1일에 지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축일이 8세기 중반 영국과 아일랜드에 퍼져 나갔을 때 이미 11월 1일에 지냈기 때문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은 매우 기쁜 축제일이다. 서양에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낼 정도이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언젠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즉, 이 대축일의 의미는 순례 중에 있는 지상 교회와 이미 하느님과의 일치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상 교회와의 일치에 있으며 이 전례를 통하여 지상 교회는 자신이 장차 누리게 될 지복직관을 미리 맛보면서, 희망의 여정을 계속할 힘을 얻는 것이라 하겠다. 바로 이 때문에 <전례헌장> 8항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할 때, 우리 순례의 목적지인 성도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의 전례를 미리 맛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은 성인들의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의 축제일이며, 영명 축일이기도 하다. ■

※참고 자료

경향잡지 2000년 11월호 전례 생활/한국 가톨릭 대사전 2662~2663쪽/계절과 축제, 안문기 지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http://my.dreamwiz.com/jutkim/sermons/ser-frm.html